



2022년 2월 토론토 강림교회

## 진리를 보는 눈 (요 8:42-59)

###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찬송 546 장, 구 399 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 봅시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눈을 감기도 하지만, 어떤 존재가 우리 믿음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귀의 꾀계를 대적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엡 6:11,12)만이 믿음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인 아닌,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42-44 절).

1)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2 절)?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은 사랑에 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한 분이 되실 수 있는가. 이 신비를 온전히 풀 방법은 없지만,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바로 '사랑'이다. 세 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 사랑의 연합을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20).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속회공과

2)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3, 44 절)?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자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나서,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이란,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상태를 말한다. 마귀는 태초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때로 교묘히 왜곡하여 사람들을 속여 왔다. 아담과 하와는 옛뱀(계 12:9), 곧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으며,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성경 말씀을 왜곡해 기만하려 했다(마 4:6). 진리 안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듯, 진리 밖에 있는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

나눔 1 마음의 눈이 욕심에 가려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절제해야 할 욕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 나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 2022년 2월 토론토 강림교회

2.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45-50 절).

1)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6, 47 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단언하신다(46 절). 이런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당연하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회개를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건 그가 성자 하나님이며,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흠 없는 전달자가 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처럼 전하는 자와 그 전하는 내용이 완전했음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들림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눔 2**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한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또 잘못이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3.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51-59 절).

1) 예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하십니까(56 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 속회공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22:18). 이 말씀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즉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이 한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갈 3:16).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류의 구원자를 소망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믿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구원자요, 아브라함보다 큰 성자 하나님이시다

**나눔 3**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답이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경험이 있습니까? 또 오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눠 봅시다.

###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리를 보게 하소서.

공동체 \_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 대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